

한국의 산업발전과 표준화는 개도국의 롤 모델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능력 배양' 과정 15일간 9개국 14명 참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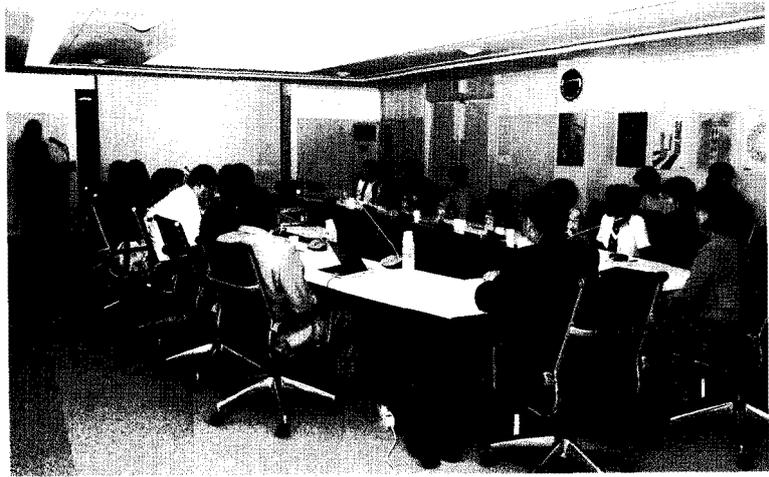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능력 배양' 과정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총 9개 개도국의 국가표준화기구와 적합성평가 관련 실무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첫 번째 케이스라는 점에 많은 관심을 피력했다. 김가현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전문위원의 진행 후기를 실는다. <편집자>”



▲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능력 배양' 과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지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능력 배양' 과정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케냐, 우즈베키스탄 총 9개국의 국가표준화기구와 적합성평가 관련 실무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개강식은 KOICA 연수센터에서 있었다. 처음 진행해 보는 개강식인데다, 모든 진행을 영어로 해야 하니 긴장되었다. 강의실에서 처음 만난 참석자들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CIS(독립국가연연합) 등 피부색도 다르고, 히잡을 머리에 두르는 등 나라마다의 특색에 맞춰 입이 다양한 모습이었다. 사회자로서 인사를 하고 기술표준원 소개를 하면서 참석자들을 보던 순간, 마치 초등학교 시절 '세계는 하나' 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민족들을 그리 넣었던 포스티가 떠올랐다.



▲ 이번 과정은 강의와 산업시찰 및 현장견학, 그룹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폭소를 자아낸 왕자님의 프로포즈

서로 서먹하게 앉아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선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친밀감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스케줄이 끝나고 참석자를 숙소로 남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형식적인 만남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그들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며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누니 참석자들도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석자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친밀하게 된 데에는 나이지리아 왕자님(?) 공도 컸다. 나이지리아 왕자란 별명은 공무원치고 나이가 이리도 귀하게 자란 터가 난다고 하여 다른 참석자들이 물어준 호칭이다. 그 왕자님께서 피부가 하얀 한국 여자가 좋다며 황송하게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다. 페이스북 친구를 맺자고 하더니 둘이 찍은 사진을 나의 모든 인맥 집결지인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것이다. 게다가 다음날엔 나이지리아로의 동행을 제안해 참가자 모두의 폭소를 자아냈다.

개도국이 집중하는 나라, 한국

프로그램은 강의와 산업시찰 및 현장견학, 그룹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이론과 사례 중심의 강의를 적절히 배치하여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 표준화와 적합성평가 체계를 소개하였고, KRIS(한국표준과학연구원)와 KTL(산업기술시험원)을 방문하는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산업시찰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강사진의 전문성과 질 높은 강의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고, 연구원의 실험실과 산업현장을 직접 보고 접하면서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다. 흥미진진하게 관찰하는 참석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위상이 새롭게 다가왔다.

참석자들의 피드백 중 인상적이었던 소감은 "이번에 한국의 성장과 발전 뒤에 숨



▲ 참석자들은 실험실과 산업현장을 돌며 관심있는 사항에 일일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이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을 겪는 등 다른 개도국과 유사한 여건 등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발전 경험이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간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사찰할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선 수십만 대의 자동차 앞에 수출국기가 붙여진 모습이나 선박 제조를 위해 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모습은 참석자들의 입을 짝 벌여지게 했다. 그들 뿐 아니라 한국인인 내개도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오는 풍경이었다. 참석자들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했다. 특히 높은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 품질 높은 상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활발한 수출과 수입을 위해서도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자국의 산업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다양한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DAC(개발원조위원회)의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이 지난 2000년이다. 하지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된 첫 번째 케이스라는 사실은 여타 개도국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 만한 사례일 것이다.

개발 협력, 선진국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안정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국제적 수준에 매우 미흡한 편이다. 우리가 원조를 받은 규모는 약 120억 불에 달하는데 반해, 공여한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아직 80억 불 정도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부상원조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보이며 끊임 없이 질문하는 그들의 열정과 고민하는 눈빛을 보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로 하여금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되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